'태권시티 무주 도약의 해'

군, '전 세계 태권도인들 결집' 대규모 국내 · 외 태권도 행사 · 대회 개최

제16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품새 세미나 모습

무주군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태권도시 무주 완성을 위해 대규모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는 등 태권도인들 결집에 나선다. 예상 선수단 규모는 2만여 명으로 이는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4년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1994년 파리 IOC 총회 결정)된 지 30주년, 태권도원 개원 10주년(2014년 4월 24일 개원)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및 대회가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7월 중에는 태권도 경기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해볼 수 있는 제17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7.18.~23.)가 개최될 예정이며 故 김운용 IOC 위원장의 뜻을 기리기 위한 제8회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 대회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이뿐만 아니라 9월에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구조물로 둘러쌓인 경기장에서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진행하는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9.6.~8.)을 도내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다. '태권도 경기는 재미있고 즐겁다'는 인식을 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권도시 완성과 완벽한 성지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무주군은 지난해 6월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연계 선상에서 2024년 파리올림픽 참가 심판 및 지도자 등 태권도 관계자 대상 교육·훈련(2천여 명)을 위한 1)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5월 중 개최)를 태권도원에서 운영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이기도 한 올해는 태권시티 무주도약의 해이기도 하다"며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무주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행사와 대회 개최에 심혈을 기울여 전 세계에 태권도의 위상, 태권도 성지의 명성을 재확인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도 정부예산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미반영돼 아쉬움이 크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다"며 "올해 4월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문체부를 비롯한 전라북도와 태권도진흥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2024년 핵심 신규사업으로 태권도의 무도적 요소와 화려한 퍼포먼스를 결합한 "태권도 킬러 콘텐츠(태권도 동아리, 전공생, 수련생 등이 기획한 창작 콘텐츠) 활성화 사업(9월 중 개최)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와 △전북 국제태권도 고등학교 설립 추진, △제4회 세계스포츠태권도 국제융합 컨퍼런스 개최,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추진, △태권마을 조성(해외사범 귀국화사업), △태권도원 내 어드벤처 챌린지 운영 등 태권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필리핀 현지 면접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현지 면접

진안군, 필리핀 방문 실시

진안군은 23일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필리핀 현지 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17일까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자체인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 퀴리노주, 이사벨라주 등 현지를 방문해 지원자에 대한 현지 최종 면접을 실시했다.

현지 면접에는 진안군청 농업정책과장 및 담당자와 공공형 운영 주체인 조공,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가 참여해 지원자들의 체력 및 색맹 테스트, 심층 면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면접은 앞서 군의 요청에 의해 필리핀 3개 지자체가 계절근로 신청자를 모집 후 1차 전형을 거쳐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 약 200여명, 퀴리노주와 이사벨라주 700여명를 선발했다.

면접관들은 현지 방문에서 서류기재 내용 일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농업 근로에 임할 수 있는 농업경력자 및 부모부양자와 다자녀 가족 지원자를 우선으로 선발했다.

진안군은 2024년도 175농가 585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협약체결국에서 공공형 60명과 농가형 275명을 단체 도입할 계획이며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을 통해 수시로 250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먹거리 기획생산 참여농가 모집

무주군이 먹거리(농산물) 기획생산을 주도하고 나섰다. 먹거리(농산물)의 기획생산은 농가 조직화를 통해 지역 내·외 관계시장의 먹거리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량을 조정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무주군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의 단계별 이익이 지역에 귀속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은 오는 2월 2일까지 기획생산 참여 농가를 모집할 예정으로 품목별 생산·출하 계획 협의를 통해 연중 다양한 품목의 로컬푸드가 공공기관 등의 소비처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적상면 괴목로 897)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모자보건 지원사업 확대 실시

장수군은 올해부터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

우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 폐지로 누구나 난임 시술 지원을 받게 되며 정부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전북형 난임 시술 지원 사업으로 추가 2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수군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부 중 올해 실시한 진단 검사 결과 난임인 경우,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의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에게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도 전면 폐지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가 각각 인상되어 기저귀는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 조제분유는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변경됐다. 출생아 모두 동일하게 200만 원씩 지원하던 첫만남 이용권(바우처)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귀농 · 귀촌 맞춤형 정책 효과

진안군, 지난해 1223명 귀농 귀촌… 해마다 지속 증가

진안군 귀농 귀촌 인구가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진안군은 2023년 한 해 동안 진안군으로 귀농 귀촌한 인구는 828세대 1,223명이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636명, 2021년 877명, 2022년 1,140명이 진안군에 터를 잡았다.

2020년~2023년까지 4년 동안 진안군에 유입된 귀농 귀촌 인구는 3,876명으로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진안군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진안군 인구 구성에 큰 비중을 갖고 있다.

진안군은 귀농·귀촌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귀농 귀촌하기 좋은 청정 진안'을 목표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귀농 귀촌 정책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군은 제1의 귀농 귀촌 정책의 목표를 귀농 귀촌인들의 지역 정착을 도와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당장의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착을 돕는 것이다.

마을환영회, 재능기부단, 이웃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동아리 활동지원 등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며, 멘토·멘티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 정착 초기의 어려움을 돕고 있다.

또한 소식지, 귀농귀촌 가이드북, 유튜브 및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대상자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진안군 홍보 및 귀농귀촌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1년 동안 임시 거처에 머물며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농원을 비롯해, 일주일 이내 단기간 진안군 곳곳을 둘러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4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과 지역 정착 이사비, 임시 거주지 임차료, 주택 구입 및 수리비, 창업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향민 귀향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귀농 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촌체험시설인 '청년 위드 꿀벌집'을 개관하여 청년 도시민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며 주거지를 찾거나 일자리를 체험하는 등 청년 캠프를 운영해 진안에 머물면서 주민과 소통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재경장수군민회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장수군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 마포구 케이터틀 호텔에서 2024년 '재경장수군민회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와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장,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근 도의원, 향우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상진 재경장수군민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 행사는 박형목 장수군 행정지원과장의 초청인사 소개를 시작으로, 이종순 군민회장의 환영사, 최훈식 군수 축사 및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군민회 장학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수 티앤시 회장이자 재경군민회 고문을 역임하고 있는 박창군 고문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최대 기부액인 5백만 원을 기부하여 고향에 대한 사랑을 전달했다.

최훈식 군수는 축사를 통해 "2024년에도 '작지만 강한 장수', '살기 좋은 부자 농촌'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으며 향우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그리고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소방서, 부주의 화재 예방 주의 당부

무주소방서는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국민들의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2023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부주의 화재건은 총 3,440건이며, 사망자 13명, 부상자 95명이 발생했다.

세부발생내용으로는 쓰레기소각,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750여건으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화원 방치, 음식물 조리중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 취급시 자리를 비우지 않고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을 보관하지 않으며, △쓰레기 소각 및 논·밭 태우지 않기 △담배 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처리시 안전 주의하기 등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